

# 미야자키 하야오

2013 <바람이 분다>





1979년: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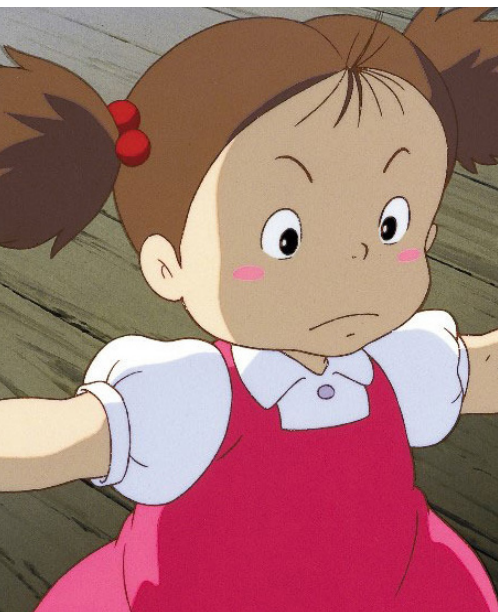
1984년: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1986년: 『천공의 성 라퓨타』

1988년: 『이웃집 토토로』

1989년: 『마녀 배달부 키키』

1992년: 『붉은 돼지』



1997년: 『모노노케 히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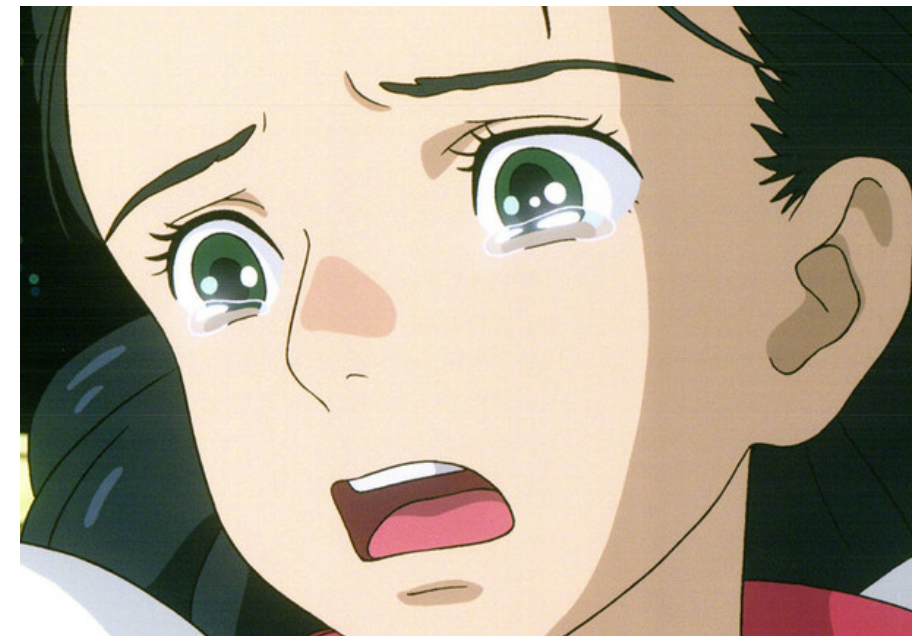
2001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004년: 『하울의 움직이는 성』

2008년: 『벼랑 위의 포뇨』

2013년: 『바람이 분다』

2023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인 미야자키 하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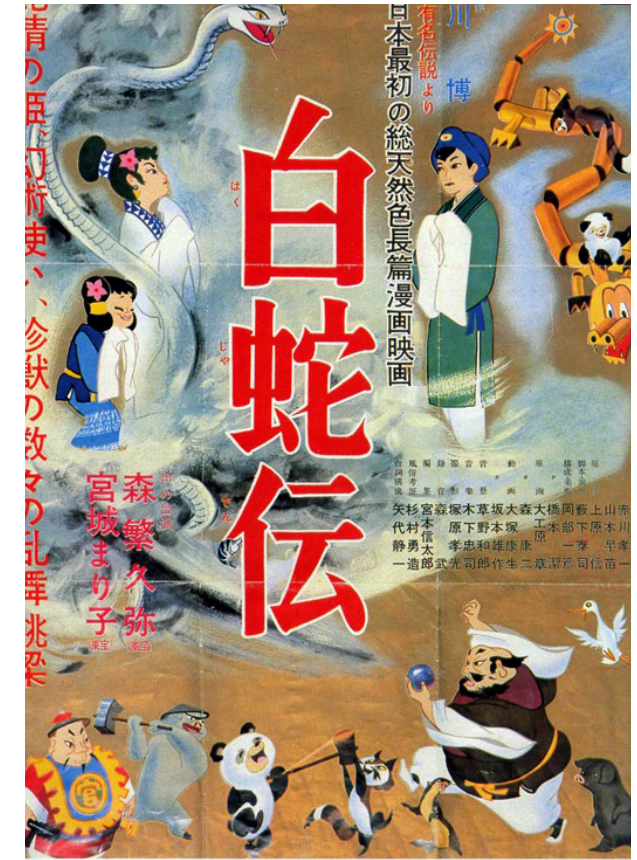
작품 설계 인터뷰

미야자키 하야오(1941년생)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자연 풍경과 사회적 변화에 깊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작품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주요 주제로 다루게 만들었다. 1963년 도쿄 예술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후, 도에이 애니메이션에 입사하여 애니메이터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미야자키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와 『미래소년 코난』 등의 작품을 통해 서정적이고 모험적인 스타일을 확립했고, 1979년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으로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1985년 이사와 다카하타와 함께 스튜디오 지브리를 설립해 『천공의 성 라퓨타』(1986), 『이웃집 토토로』(1988), 『모노노케 히메』(1997)와 같은 작품을 통해 스튜디오만의 독창적이고 환상적인 세계관을 구축했다. 특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1)으로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최근 작품으로는 2013년 『바람이 분다』가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항공 기술자 지로의 삶을 다루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감독의 깊은 철학적 고민을 담아냈다. 또한 그는 2023년에 개봉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 다시금 주목받았다. 이 작품은 전쟁과 재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소년의 여정을 그리며 미야자키의 인생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최신 작품에서도 여전히 인간과 자연,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주제를 탐구하며, 전통적인 수작업 애니메이션을 고집하는 장인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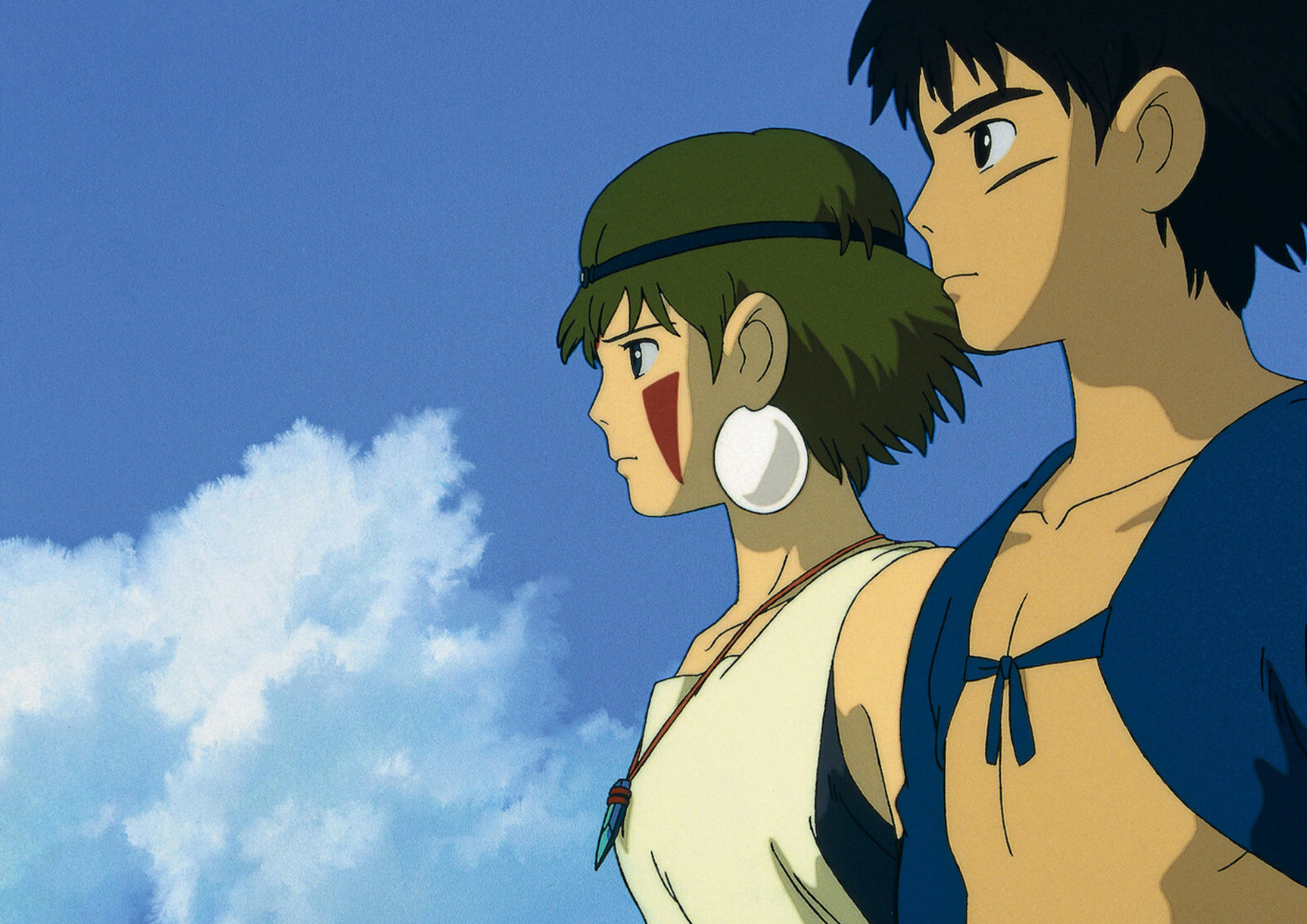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께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무엇이 감독님을 애니메이션의 길로 이끌었나요?



도에이 애니메이션, 『백사전』(1958년)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은 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만화와 동화책 속에 담긴 상상력의 세계에 매료되어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이끌었던 것은 1958년에 본 『백사전』이라는 일본 최초의 장편 컬러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이 작품은 저에게 애니메이션이 단순한 그림 이상의 예술적 표현을 담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때부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생기게 되었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영화에 자주 담아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현대 사회가 자연을 파괴하며 성장하는 모습에 큰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마치 무한한 자원처럼 여기고 있지만,  
저는 자연이 그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노노케 히메』에서도 그렇듯이,  
자연의 힘과 신성함은 인간의 욕망과 쉽게 조화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배려를 요구하고, 인간은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자연의 신성한 존재를 표현하면서,  
인간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그려 넣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노노케 히메』 시시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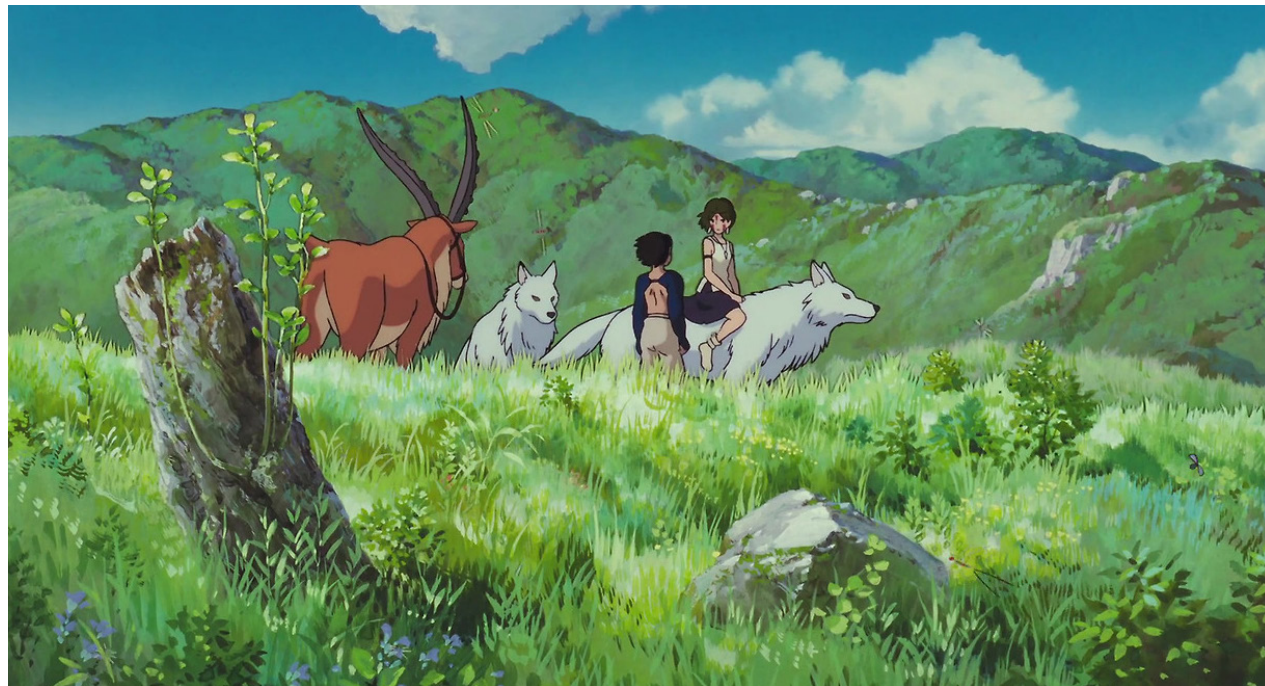
『모노노케 히메』에서 산의 영혼들, 고다마나 시시가미 같은 존재들은 단순한 신비로운 생물체가 아니라 숲 자체의 힘과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그들과 조화롭게 공존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관객들이 이러한 신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자연을 다시 바라보고, 자연이 단순한 자원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자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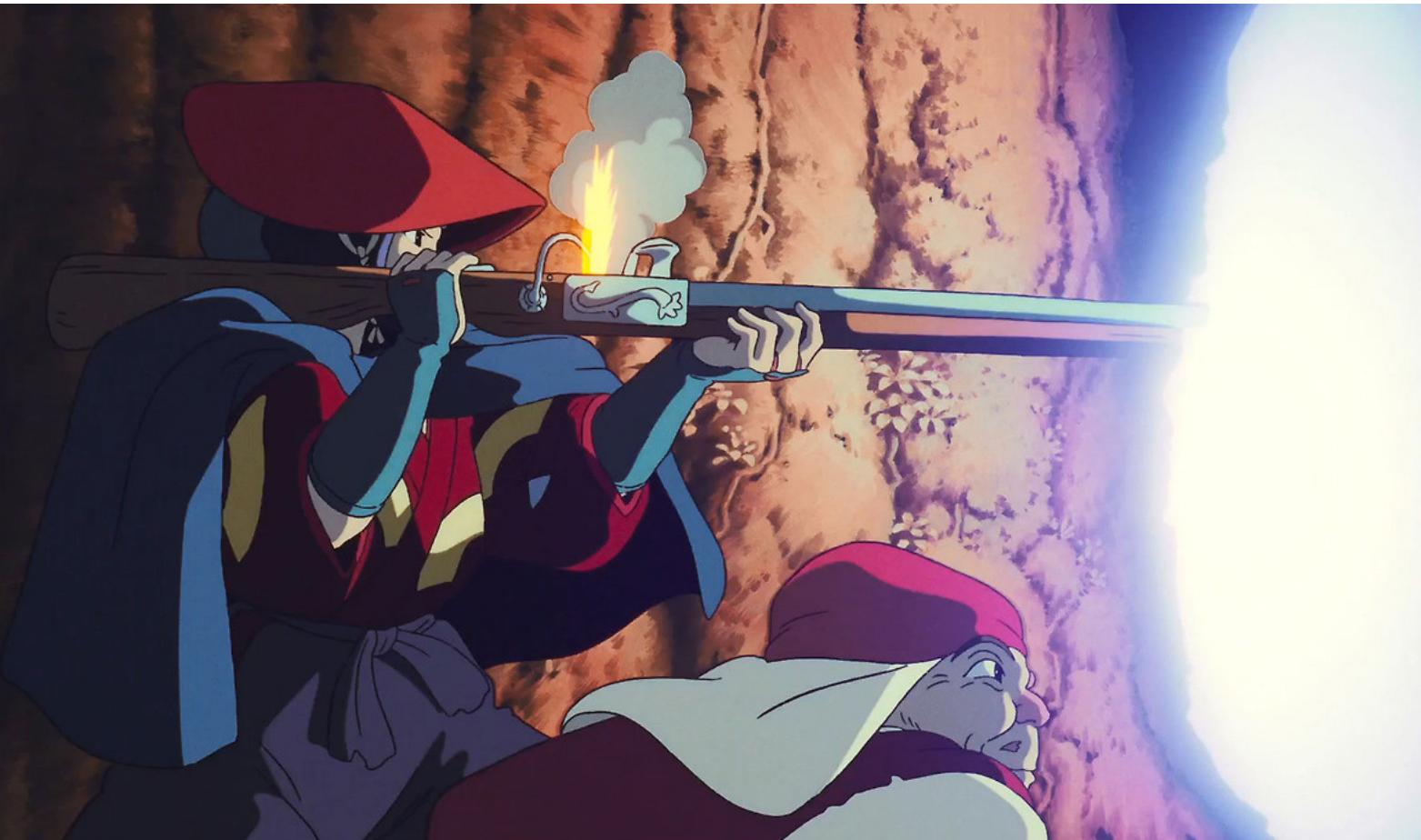
감독님 작품에는 자연과 여성의 강한 연결성이 자주 드러나며,  
일종의 에코 페미니즘적인 시각이 엿보입니다.  
이러한 주제 의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숲을 수호하는 늑대 신 모로와 그의 인간 양녀인 산(모노노케 히메)은 인간의 자연 파괴에 맞서 싸우며 자연을 지키고자 한다. 산은 인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며 에보시와 대립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에보시를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이에 반해 자연의 존엄과 힘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자연과 여성은 제 작품에서 중요한 존재로, 강인하고 자생적인 힘을 가진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의 생명력과 여성의 내면에서 발견한 강한 의지와 연관이 깊습니다. 저는 자연이  
단순히 인간의 자원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성 캐릭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자연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거칠고 강인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여성  
캐릭터들도 같은 강한 내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과 여성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함과 회복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가치가 영화 속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여러 작품에서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자주 다루시고, 반전주의적 메시지를 담아내시는데 이러한 주제를 영화에 포함하게 된 특별한 이유와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전쟁과 파괴의 이미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될 잘못을 상기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품을 통해 전쟁이 남기는 비극과 상처를 표현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순수한 감정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서는 인간이 탐욕과 무책임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끝없는 갈등에 빠지는 모습을 통해 반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전쟁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저는 영웅적인 인물보다는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개인들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려 노력합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는 전쟁이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는지를, 하울과 소피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두 인물 모두 전쟁의 폭력 속에서 삶이 크게 흔들리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내려는 모습을 통해 평화와 연대의 중요성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저에게 전쟁 장면은 단순한 갈등이나 극적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평화와 인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관객이 이러한 장면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그로 인해 파괴되는 가치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전쟁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불의 7일





『붉은 돼지』, 『마녀 배달부 키키』, 그리고 『바람이 분다』 같은 작품에서 비행 장면이 특히 인상 깊습니다.  
감독님께 비행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비행 장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나요?

제가 비행 장면을 자주 다루는 이유는 개인적인 동경과 함께, 하늘을 나는 것이 인간 상상력과 자유의 상징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을 꿈꾸곤 했습니다. 구름 속을 비행하는 장면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며, 기술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순간을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바람이 분다』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행기를 등장시키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지로가 만든 비행기는 결국 전쟁에 사용되지만, 저는 이 비행기를 단순한 군사 도구로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인간의 꿈과 창의성의 산물이며, 지로가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갈등과 이상을 통해 전쟁의 복잡한 문제를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전쟁, 인간의 갈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아내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비행기를 만들던 제 아버지의 영향도 컸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전쟁 속에서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참혹함을 깨닫게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양가적인 감정을 영화 속에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구름 속을 나는 비행기의 이미지는 인간이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웃집 토토로』 숲검멍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귀여운 마스크트격 캐릭터들이  
작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와라와라



『벼랑 위의 포뇨』  
포뇨의 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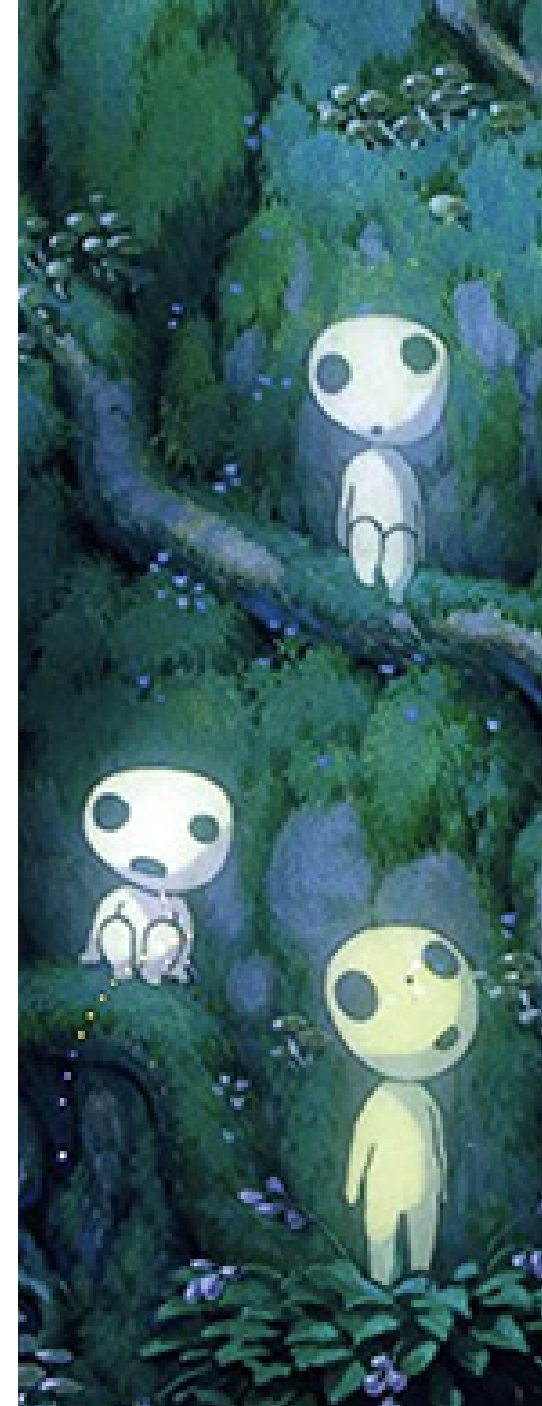
작품 속에서 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캐릭터들은 특정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객이 친근하게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력을  
느낄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의 와라와라는 숲의 작은 영혼들로, 자연이 단순한 배경이 아닌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숲 속의 와라와라를 통해 관객은 자연의 신비와 경외감을 느끼게 되죠.  
저는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 표현하고 싶었고, 이러한 캐릭터들을 통해 자연의 살아있는  
감정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웃집 토토로』에 등장하는 숲검멍이는 오래된 공간에 남아 있는 기억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집 안 구석에 숨어 있으며, 주인공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그 공간에 애정을 갖게 만듭니다. 숲검멍이는 단순한 장소가 아닌 감정이 깃든 공간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벼랑 위의 포뇨』의 포뇨의 동생들은 포뇨의 호기심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 작은 동생들은 바다의 다양한  
생명체들과 어울리며, 바다의 풍부함과 신비로움을 표현해요. 어린 관객들이 포뇨를 통해 바다와 자연을  
더 친근하게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포뇨의 자유로운 모습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모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도록 구성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노노케 히메』의 코다마들은 숲의 신성함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요정들은 자연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깊이와 신비를 지닌 존재임을 알려주고, 산과 숲의 경이로움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인간이 감히 파괴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이  
자연과의 조화와 존중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모노노케 히메』 코다마



감독의 작품 세계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감정과 가치를 탐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환경을 파괴하며 성장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 감독은 특히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묘사하며,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와 존중의 태도를 강조한다. 그는 관객에게 자연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대상이자 보호해야 할 존재임을 일깨우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와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되새기고자 한다.

감독의 작품에서는 강인한 여성 캐릭터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존재로서 등장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치히로, 『모노노케 히메』의 산, 『마녀 배달부 키키』의 키키 등은 모두 강한 내면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간다. 그는 이러한 캐릭터들을 통해 전통적 성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여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관객이 그들의 성장과 용기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감독은 여성의 강인함과 자아를 탐구하며,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자아와 용기를 되새기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감독은 또한 전쟁과 평화,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파괴에 대한 주제를 다루며, 이를 통해 반전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서는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탐욕이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끔찍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쟁이 인간성을 잃게 만드는 무의미한 행위임을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그는 단순히 영웅적 인물들이 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개인들이 자신의 고뇌와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하야오 감독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넘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의 작품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가족과 친구 간의 유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 등이 담겨 있어, 관객들이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성찰하게 한다. 특히 『이웃집 토토로』는 어린이들이 느끼는 순수한 경이와 자연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따뜻한 감정을 일깨우며, 가족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강조한다. 감독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이 일상 속에서 중요한 감정과 관계를 되새기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려 한다.

고유의 섬세한 시각적 연출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그의 작품 속 배경과 풍경은 실제 세계 이상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캐릭터의 감정과 맞물려 관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분다』에서는 기술 발전과 비행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탐욕과 전쟁의 영향 속에서 이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관객에게 묻는다. 감독의 애니메이션은 오락을 넘어 예술로서, 현대 사회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며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감독의 작품은 단순한 애니메이션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며, 전 세계 관객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공존,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았다.